

번역 과정과 문맥의 단계

김 정 우*

目 次

I. 서론 -문맥의 중요성-

II. 문맥의 개념 -다층적 접근-

II.1. 언어 문맥과 상황 문맥

II.2. 문맥의 다층적 성격

III. 사례 연구

III.1. 원문 해제

III.2. 번역과 문맥

IV. 요약 및 결론

I. 서론 -문맥의 중요성-

번역 과정이 실제적인 작업에서 원문의 문맥에 의존한다고 하는 명제는 새삼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사실상 번역 과정에서 흔히 언급되는 직역과 의역의 문제도 어느 정도 문맥의 문제로 환원이 가능하다.¹⁾ 하지만 실제로 원서를 마주하고 번역 작업에 접어들면, 이러한 일반론이 그

*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조교수(국어국문학 전공)

1) '직역'이란 술어와 '의역'이란 술어는 어느 정도 상대적인 개념이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편견이겠지) 이들 술어가 번역의 우열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직역'이 이른바 '통사 구조의 모사' 차원의 초보적 번역이 아님은 물론이다. 양자는 넓게 보아서 번역자의 의도에 따른 문체적인 차이로 이해되어야 한다. ('번역자의 의도'란 원문의 내용, 문헌의 성격, 독자층의 수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세국어 시기에 간행된 수많은 불교 경전과 유교 경전의 언해서가 생생한 증언을 남겨주고 있다. 「소학언해」의 '범례'와 '발문(跋文)」을 보면 번역 태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진술이 나온다.

“戊寅本 欲人易曉 字義之外 并入注語爲解 故未免有繁冗處 今卽冊去枝葉—依大文 逐字作解 有解不通處 卽分注解之 (범례)”

“多以文學自許者 爲此解頗詳密 獨舍其字義 衍以註語 故文與釋判爲二 賢者病之 ... 逐字作解 要以不失之義爲重 ... (발문)”

간단히 말하면 이 「소학언해」보다 앞서 번역된 바 있는 「번역소학」이 너무 의역으로 흘러서 원문과 번역문이 판이하게 달라졌으며, 이를 문제로 여긴 편찬자들이 「소학언해」에서는 이런 태도를 시정하여 직역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소학언해」의 편찬자들은 '고급스러운' 글솜씨를 유보하고 원문의 내용을 충실히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통상 같은 원전을 두 번

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역시, 조금이라도 번역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의 어떤 단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문맥을 잘 파악해서 주어진 문맥에 가장 잘 어울리는 번역 어휘를 골라서 써야 한다'고 하는 명제도 지나치게 순진한 탁상공론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는 그만큼 '문맥'이라는 술어가 갖는 의미가 그야말로 '문맥'에 따라서 유동적이라는 역설에 대한 하나의 방증인 동시에, '문맥'이란 적어도 하나의 고정된 접근 방법만으로는 풀어나갈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²⁾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문맥에 관한 일반론이 실제 번역 작업에서도 그 효력을 잃지 않으려면 우선 문맥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를 실제 작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가공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단순치 않은 개념을 갖는 문맥의 언어학적 개념을 규정한 다음(제II장), 이를 토대로 하여 실제 영어 원문을 우리말로 옮기는 번역 과정에서 '문맥에 대한 다층적 접근 방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작업 방안(manual)의 성립 가능성(제III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II. 문맥의 개념 -다층적 접근-

II.1. 언어 문맥과 상황 문맥

문맥의 개념 파악을 위하여 <언어학 사전>에서 '문맥'과 관련된 항목을 찾아서 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³⁾ 관련 항목으로는 '문맥'(=맥락)과 '상황 문맥', '문맥 의미'의 셋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문맥'과 '문맥 의미'는 대체로 유사한 개념이므로 우리의 관심은 '문맥'(=문맥 의미)과 '상황 문맥' 두 가지에 집중된다.⁴⁾ 우선 '문맥'은 '특정 언어 단위의 전후에 위치하여 해당 언어 단위

이상 번역한 경우에 제목에 '언해'라는 이름이 붙었으면 '직역'된 문헌으로, '번역'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면 '의역'된 문헌으로 취급한다.

- 2) '문맥'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앞뒤 문장들과의 상관 관계를 떠올린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는 '문맥'이 가진 여러 개념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실제 번역 작업에서는 문맥에 대해서 이보다 더욱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개념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 3) 여기서 참고한 <언어학 사전>은 「언어학 사전」(이정민·배영남 지음, 1982)과 「영어학 사전」(조성식 편, 1990)의 두 가지이다. 표제어 'context'와 'context of situation'에 대해서 전자에서는 '맥락'과 '장면의 맥락'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고 있고, 후자에서는 '문맥'과 '상황의 맥락'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고 있다. 'contextual meaning'에 대해서는 '맥락 의미'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법을 따라 차례로 '문맥', '상황 문맥', '문맥 의미'로 지칭하기로 한다.
- 4) Halliday에 의하면 맥락 의미(=문맥 의미, contextual meaning)란 '언어 표현이 특정 맥락(=문맥, context) 속에서 사용될 때 그 맥락과 관련해서 갖게 되는 의미'를 가리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맥락 의미란 형식(form)과 상황(situation)을 관련지어 주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의미를 문장 의미와 발화 의미로 구분할 경우, 맥락 의미는 발화 의미에 해당한다. 이처럼 엄밀하게 구분을 짓는다면 몰라도, 일반적인 용법상으로는 문맥의 기능이 결국 의미 기능이기에 때문에 문맥과 문맥 의미는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의 용법에 제약을 가하거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 주는 발화(utterance)의 한 부분'이다. 이러한 사전적 뜻풀이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용법과 틀리지 않다. 다만 문맥의 기능 가운데 '소극적'(negative) 기능 말고도 '적극적'(positive) 기능도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보통 '문맥'이라고 하면 '용법의 제한 기능'만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는 물론 특정 언어 단위의 용법을 '제한'하는 기능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문장 내지 발화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해당 언어 단위의 용법을 '허락'하는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 (1)에서 밑줄 그은 단어는 (더 이상의 문맥이 없다면) '계산서'인지 '부리'인지 '낮'인지 그 의미를 쉽게 추단할 수 없다.⁵⁾

- (1) The bill is large.
 (2) ... but need not be paid.

그런데 이 문장의 다음에 (2)와 같은 문장이 이어진다면, 이 명사의 중의적 해석 가능성(ambiguity)은 사라지고 다양한 의미 영역이 '계산서'로 좁혀져서 비로소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이 해소된다. 화자의 의도적인 책략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중의성을 갖는 발화란 실제 언어 상황에서 사용되기 힘들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 경우의 (2)와 같은 문맥은 (1)의 성립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문맥의 '소극적' 기능(=제한)과 '적극적' 기능(=허락)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문 (1)은 (2)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용법의 '제한'을 통해서 비로소 현실 언어 세계에서 사용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 문맥을 다음에 나오는 '상황 문맥'과 구분하여 '언어 문맥'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상황 문맥이란 '발화가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상황, 즉 화자와 청자, 장면, 언어적 행동, 비언어적 행동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언어 표현의 의미는 그 언어 표현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말리노우스키(Malinowski)는 이런 상황을 '상황의 맥락(=문맥)'이라 하여 언어 구조 전후 관계를 일컫는 언어상의 맥락(=문맥)과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발화가 일어나는 장면을 모두 남김없이 기술한다는 것은 방법론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현실적으로 객관적이고 논증 가능한 기술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한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퍼스(Firth)의 이론이 주목되는데, 퍼스는 상황의 맥락을 의미 기술을 위한 기법으로 간주하고, 음성과 어휘, 문법과 같은 언어 계층 각각에 대해서 의미 기술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황의 맥락에 따라 통합시키고 있다. 여기서 상황의 맥락을 구성하는 인자로는 세 가지 ①언어 활동에 참가하는 화자와 청자의 언어적 활동과 비언어적 활동 ②언어 활동에 관련된 사물 ③언어 활동의 효과)를 들고 있다. 그런데 화자와 청자는 언어 활동의 참가자로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속하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또는 그 사회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인격을 가진 개체로 취급된다. 여기서 중요한 상황 인자를 추출해낼 수 있는데, 그것은 크게 화자와 청자 및

5) 이 예문은 조성식 편(1990:275)의 설명에서 취했다. 그리고 예문 (1)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주어의 중의적 해석 가능성을 열어주는 형용사 'large'에 대해서는 'a large sum of money' 등과 같은 용법을 참고할 수 있다.

발화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의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⁶⁾ 결국 상황적 문맥이란 ‘발화가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상황’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상황 인자는 화자와 청자, 발화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들 수 있다.⁷⁾ 이와 같은 상황적 문맥은 물론 언어 요소로 표현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서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개별 언어 자체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이 상황적 문맥이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그것은 영어와 같은 인구어(Indo-European languages)가 주어와 술어의 대립을 기초로 한 논리적인 표현을 선호하는 데 비해서 우리말은 구체적인 발화 상황을 중시하는 표현을 선호한다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주어진 언어 표현의 적격성 내지 용인 가능성(well-formedness, acceptability)을 판별할 때, 인구어에서는 문장 차원에서 드러난 요소들만으로 가능하지만, 우리말에서는 여기에 상황 요소까지 덧붙여야 한다는 뜻이다. 흔히들 논의되는 영어의 ‘무생물 주어’ 구문도 이러한 표현상의 특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무생물이 사람을 움직이는 따위는 구체적인 발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므로 우리말에서는 언어 표현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아래의 예문은 우리말의 이와 같은 특성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 (3) 나는 백두산이 높아요.
- (4) 가위가 내 옷을 쪽 찼었다. (?)
- (5.a) 너 애인하고 같이 걸어가더라.
- (5.b) 창수가 애인하고 같이 걸어가더라.
- (5.c) 내가 애인하고 같이 걸어가더라. (?)

예문 (3)은 이른바 주격 중출문으로 인구어 문법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때 ‘유치원의 학급’이라는 발화 상황을 상정하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냐는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답변을 했다고 한다면, (3)은 전혀 손색이 없이 성립하는 우리말 문장이다. 예문 (4)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우리말에서 쓰일 수 없는 문장이다. 무생물인 ‘가위’가 동작을 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누가) 가위를 가지고 내 옷을 쪽 찼었다.’처럼 표현해야 정상적인 우리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좀 특수하긴 하지만 적절한 상황만 주어진다면 이 예문 역시 정상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가령 ‘전설의 고향’과 같은 상황을 설정하고 ‘갑자기 방 안의 촛불이 꺼지더니 책상 위에 가만히 놓여 있던’ 정도를 덧붙여 보라. 오싹한 느낌이 들긴 해도 우리말 문장으로 아무 손색이 없이 성립한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예문 (5)는 우리말의 독특한 형태소 ‘-더-’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 형태는 흔히 과거의 회상과 보고(報告) 정도의 통사·의미 기능을 첨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용법상 1인칭에는 쓰일 수 없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위에서도 (5.a)와 (5.b)는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데 반해서 (5.c)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성립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보니까’라는 상황을 상정하면 이 예문 (5.c)가 정상적으로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다.

6) 언어 활동(=발화)의 효과는 발화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에 포함된다.

7) 우리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어법은 발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배경이라는 상황적 문맥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우리말의 해석에는 언어 외적인 요소(=상황 요소)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우리의 주제와 관련시켜 보면, 번역 작업에서 '주어진 문맥에 맞아야 한다'는 일 반론은 좀더 구체적으로 '주어진 언어 문맥과 상황 문맥에 맞아야 한다'로 고쳐서 말할 수 있다.

II.2. 문맥의 다층적 성격

앞절에서 '문맥'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문맥을 언어 문맥과 상황 문맥으로 구분하여, 문맥의 개념 규정에 있어서 일견 모호한 측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구분은 실제 발화를 분석해 보면 더욱 많은 층위로 다시 세분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⁸⁾ 동요로 되어 있는 간단한 우리말 언어 표현을 예로 들어 언어적 문맥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아보 기로 하자.

- (6)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엔 파랗 거예요. 산도 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며 자라니까요.

위의 예문 (6)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첫 문장에서 '파란 빛'이라는 언어 관계(連語, collocation)를 추출해낼 수 있다. 이 구절에서 그 구성 요소인 용언의 관형형 '파란'과 체언 '빛'은 각자 상대방에게 유효한 문맥을 제공해주고 있다. 우리말에서 '빛'은 '광선'과 '색채'의 의미를 지닌 일종의 다의어(polysemy)인데, '파란'과 연결됨으로써 후자의 의미를 갖게 된다. '파란'도 일단 '빛'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색채의 하나라는 의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⁹⁾ 그렇지만 아직까지 '파란'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상태가 못 된다. 우리말의 '파랗다'는 '초록색'과 '청색'을 함께 아우르는 형용사이기 때문이다. '파란'의 의미 해석은 다음 문장 전반부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산과 들과 나무의 파란 잎'이라고 하면 이 '파란'은 '초록색'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둘째 문장의 후반부를 보면 '파란 하늘'이란 구절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 경우의 '파란'은 다시 '청색'이 되기 때문에 앞선 의미 해석과 맞지 않는다. 결국 이상의 문맥을 모두 종합하면 '파란'은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초록색'과 '청색'을 모두 가리킬 수 있도록 배치한 형용사임을 알 수 있다.¹⁰⁾ 우리는 여기서 '파란'의 최종적인 의미 해석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인접 문맥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언어 단위의 규모가

8) 사실은 언어 자체가 '분절'(articulation) 현상을 주요한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바로 다음에 나오게 되겠지만, 언어 단위들의 결합으로 단위가 커지면서 순차적으로 새로운 문맥 부여가 가능한 과정은 통사론에서 말하는 이른바 '직접구성요소 분석'(Immediate Constituent Analysis)의 역순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9) (cf.) 파랗게 질렸다.

10) 이러한 용법은 물론 '청색'과 '녹색'이 분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말의 고유어 형용사 체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커지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를 형식화시켜서 말한다면, 언어 문맥이란 (다층적이라기보다) 가장 작은 단어와 단어의 연결로부터 시작하여, 그보다 큰 단위들로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의미 해석 기능을 수행하는 다층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영어 원문을 우리말로 옮긴다고 할 때, 아래와 같은 다층적인 언어 문맥 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7) 연어(連語) - 구 - 절 - 문장 - 단락 - 글 전체

실제 번역 작업에서 이러한 언어적 문맥 구조를 일일이 다 확인하기란 힘든 일이지만, 최소한 문장과 단락과 글 전체의 3단계 확인 과정은 거쳐야 원작자의 의도에 근접하는 번역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앞서 논의한 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언어 문맥 외에도 상황 문맥의 존재를 알고 있으므로 (7)의 구조에다 상황 문맥까지 덧붙여야 최선의 번역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번역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문맥 구조 (7)은 다음과 같은 (8)의 구조로 수정된다.

(8) 연어 - 구 - 절 - 문장 - 글 - 상황

위 (8)의 구조는 각 항목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어'는 '구'에 포함되고 '구'는 다시 '절'에 포함되는 식으로 왼쪽 항목이 오른쪽 항목에 완전하게 포함되는 논리 관계를 이루고 있다.¹¹⁾

다음 제Ⅲ장에서는 (8)과 같은 문맥 구조를 실제 번역 작업에 대입시켜 그 효용성 여부를 검증하기로 한다.

III. 사례 연구

III.1. 원문 해제

여기서 다루게 되는 원문은 두 편의 우화로 첫째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이솝 우화의 하나이며, 둘째는 같은 내용을 프랑스인 라 폰텐이 약간 달리 각색한 우화이다.¹²⁾ 이솝 우화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라 폰텐 우화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이

11) 이와 같은 문맥 구조의 도식화는 사실상 서로 다른 두 가지 작업을 전제로 한다. 번역자는 원문의 문맥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우리말의 문맥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문맥의 확인 작업이 여기 제시된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 단계가 생략될 수도 있다. 예컨대 제3장에서 검토하게 되는 두 편의 우화는 단락 구분이 없기 때문에 문장 단계에서 바로 글 전체 단계로 넘어간다.

12) 이솝 우화의 판본은 「Aesop's Fables」(Penguin Classics, 1954)를 이용했으며, 라 폰텐 우화의 판본은 「Jean De La Fontain: Selected Fables」(Penguin Classics, 1982)를 이용했다.

우화의 작자인 라 폰텐(Jean De La Fontain, 1621-1691)은 프랑스의 절대 왕정 시기인 17세기를 살았던 문필가로 이솝 우화와 인도 우화 등을 자료로 삼아서 많은 우화를 창작했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우화이더라도 17세기 프랑스라는 시간적인 추이와 공간적인 변용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도 부분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¹³⁾ 그리고 형식상으로도 전편이 운문(=시가, verse)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채롭다고 하겠다. 우리는 이 두 편의 우화를 우리말로 옮기면서, 번역 과정상의 비교를 통해서 운문이라는 형식이 요구하는 언어 문맥의 변모 과정과 상이한 시간·공간적 배경이 요구하는 상황 문맥의 영향력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III.2. 번역과 문맥

이 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원문>이라는 제목 하에 우화를 제시하고 나서 문장 단위로 일련 번호를 매겨서 번역에 착수한다. 한 문장씩 문장 단위의 번역이 끝날 때마다, 문장 차원에서 이루어진 번역을 다시 더욱 큰 언어 문맥 속에서 순차적으로 글 전체에 이르기까지 대입하여 번역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 검토 과정을 마치면 언어 문맥의 검증 작업이 모두 끝나고, 다음으로 상황 문맥의 검증 작업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친 각 문장의 번역을 한 데 모아서 <번역>이라는 제목 하에 다시 우리말로 된 우화 전문을 제시한다.

<원문 1>

We Get The Rulers We Deserve

①The frogs were tired of having no one to govern ①them, and sent a deputation to Zeus to ask for a king. ②He saw how ②simple they were. ③So first of all he just dropped a block of wood in the pond. ④For a moment they were frightened by ④the splash and dived to the bottom. ⑤Then, since ⑤the wood stayed quite still, they came to the surface, and in the end they became so contemptuous of it that they jumped up and squatted on it. ⑥Thinking it undignified to be ruled by such a thing, they approached Zeus again and asked him to change their king: this one, they said, was too ⑥easy-going. ⑦Losing patience with them, he sent them a water-snake, which devoured ⑦as many of them as it could catch.

This fable teaches us that we are better off with an indolent and harmless ruler than with a mischief-making tyrant.

우선 제목부터 살펴보면, 'deserve'라는 동사가 '받을 만하다, 가치가 있다'는 뜻이니 백성들이 우매한데 왕만 혼자서 똑똑할 수 없으며, 거꾸로 백성들이 똑똑하면 똑똑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도 똑똑할 것이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이런 논법을 좀더 연장한다면 포악한 왕(또는 독재자)이

13) 설령 언어로 표현된 내용이 완전하게 같더라도 상황 문맥(=시간적·공간적 배경)이 다르므로 다른 의미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런 왕을 만든 백성들의 책임이라는 추론도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 어쨌든 왕과 그 왕을 받드는 백성들은 뭘해야 뭘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고려하여 원문의 축자적 뜻과 다소 거리가 생기는 약점을 무릅쓰고 '백성의 급수가 왕의 급수'라고 의역을 해 보았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문장 앞에 붙은 일련 번호대로 한 항목씩 검토해 보기로 하자.

㉑에서는 ㉒가 문제인데, 원문에 인칭대명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말 문맥에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영어의 재귀대명사는 재귀대명사가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 절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즉, 절을 넘어서면 동일 인물이라도 재귀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다. e.g. Terry knows that his mother intended to send him/ *himself for the doctor.), 이에 반해서 우리말의 재귀대명사는 훨씬 자유로운 적용 범위(예컨대 문장을 서너 개 건너서도 재귀화가 일어날 수 있음)를 가지므로 영어의 인칭대명사가 우리말로 넘어오면서 재귀대명사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언어를 건너오면서 표현 형식이 달라져야 하는 경우이니,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형식 문맥의 변용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㉑개구리들은 자기네를 통치할 사람이 없이 너무 제멋대로들 노는 데 스스로 싫증이 난 나머지, 제우스 신한테 대표를 보내 왕을 하나 내려 달라고 간청했다.

㉑에서는 ㉒의 형용사가 문제이다. 이 문장만 가지고는 그 의미 해석이 유보적('순진한', '단순한', '간단한' 등)이기 때문이다. 더 큰 언어 단위가 제공하는 언어 문맥의 도움을 받아야만 의미 확정이 가능하다.¹⁴⁾ 여기서 단서가 되는 문맥은 마지막 문장 ㉑인데, 거기서는 제우스 신이 개구리들한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온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특하게 여긴다'는 어감이 느껴지므로 호감이 배어 있는 '순진한'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결국 글 전체의 언어 문맥을 참고한 번역이라고 하겠다.

㉑제우스 신이 보니, 저것들이 참으로 순진하구나, 싶었다.

㉑에서는 부사 'just'와 단위 명사 'a block of' 정도가 문제이다. 먼저 부사는 '별다른 생각 없이'나 '그다지 힘 안 들이고'의 뜻이므로 문자 그대로 '그냥'도 무난하겠다. 좀더 분위기를 살리고 싶다면 '그냥 툭 하고' 정도도 괜찮다. 다음으로 물질명사의 수량화를 담당한 단위 명사는 관련된 물질명사 '나무'와 결합이 가능해야 한다. 일종의 언어 관계 문맥이다.

㉑그래서 일단 연못에다가 나무 토막 하나를 그냥 '툭'하고 떨어뜨려 주었다.

㉑에서는 ㉒의 어휘 선택이 관건인데, 영어로는 '튀는 소리'나 '튀김' 정도의 추상명사로 표현되고 있지만 우리말로는 좀더 실감이 날 수 있도록 의성어를 이용하면 좋다.

㉑한동안 개구리들은 나무 토막이 떨어지는 '툭' 소리에 놀라서 연못 바닥으로 잠수해 들

14) 앞서 밝혔듯이 이 원문은 전체가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으므로 단락이 곧 글 전체가 된다.

어가서 숨을 죽였다.

㉔에서는 ㉓의 번역이 관건인데, 이 부분을 앞 문장과 비교하면 단위명사가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관사를 동반한 특정화된 용법이므로 인접 문장의 언어 문맥을 고려하여 '대왕 나무토막'으로 옮기기로 했다.

㉔그러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 대왕 나무토막이 아무 말도 없이 잠잠하자, 개구리들은 연못 표면으로 솟구쳐 올라왔다. 개구리들은 차차 '이건 뭐 아무 것도 아니구나!' 싶어서 대왕 나무토막을 툭툭 쳐보고 올라타보고 하면서 업신여기기 시작했다.

㉕에서는 우선 문장 앞에 접속어('그러다가')를 보충해야 앞 문장과 연결이 매끄럽다.¹⁵⁾ 이는 인접 문장이 부여하는 언어 문맥을 고려한 번역이다. 번역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간 문장부호와 ㉔의 어휘 선택 정도이다. 문장부호는 문장 성분 사이의 경계선을 나타내는 용법인데, 여기서는 인용문을 이끌고 있으니 인용 부호(=따옴표)로 대치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런데 인용부호로 바꾸고 나면 인용부호 안에 개구리들의 말을 담게 되는데, 이때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해서 어조를 결정해주어야 한다. 여기에 상황 문맥이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㉔는 보통 '좋은 게 좋은', '땀고 끊는 데가 없는' 성격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원래 뜻대로 그냥 '게으른'이 어울린다. 이와 관련하여 글 전체의 말미에 있는 교훈에 나오는 단어 'indolent(게으른, 나태한)'가 참고가 될 것이다.

㉕그러다가 마침내 그런 목석 같은 물건한테 통치를 받는 것이 어쩐지 체면이 깎이는 일처럼 생각한 개구리들은 다시 한 번 제우스 신한테 가서 자신들의 왕을 바꿔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번에 내려 주신 왕은 너무 게으릅니다."

㉖에서는 문두의 분사구문과 관용구 ㉕의 번역이 관건이다. 분사구문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끝까지 참지 못하다'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화를 내다' 정도가 분명한 어감을 전달해 준다. 우화처럼 압축된 이야기에서는 모호한 단어보다 분명한 단어가 메시지의 전달에 효과적이다. 우화라는 글 전체의 분위기가 어휘 선택에서 상황 문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¹⁶⁾ 관용구 ㉕의 번역에는 우리말 구문에 대한 약간의 감각이 필요하다. 원래 영어 구문 'as many... as'은 'as' 이하와 동수(同數)를 나타내므로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우리말 구문의 구사가 핵심이다. 특히 구어 표현에서 찾으면 생생한 어법이 될 것이다.

㉘제 주제를 모르고 설치는 개구리들한테 화가 난 제우스 신은 물뱀 한 마리를 연못으로 내려보냈다. 물뱀 대왕은 '웁다구나!'하고 개구리를 잡히는 족족 집어삼켜 개구리 요리로 실컷 배

15) 이 접속어는 물론 원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언어 문맥에 따라 적절한 접속어를 적절한 위치에 배열해야만 문장들이 제각기 토막나는 번역을 피할 수 있다.

16) 상황 문맥의 구성 인자 가운데서 발화의 공간적 배경에 해당하며, Firth의 술어에 따르면 '발화의 효과'에 해당한다.

를 채웠다.

교훈에서는 중간에 나오는 형용사 'indolent'의 처리가 걸리는데, 단어 자체에 담겨 있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좀 어색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적 의미 그대로 옮겨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게으르지만 남을 해치지 않는 왕이 불행을 만드는 독재자 왕보다 백성들 입장에서 훨씬 지내기가 낫다는 내용이다.

<번역 1>

백성의 급수가 왕의 급수

개구리들은 자기네를 통치할 사람이 없이 너무 제멋대로들 노는 데 스스로 싫증이 나서 제우스 신한테 대표를 보내 왕을 하나 내려 달라고 간청했다. 제우스 신이 보니, 저것들이 참으로 순진하구나, 싶었다. 그래서 일단 연못에다가 나무토막 하나를 그냥 '툭'하고 떨어뜨려 주었다. 한동안 개구리들은 나무토막이 떨어지는 '툭' 소리에 놀라서 연못 바닥으로 잠수해 들어가서 숨을 죽였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 대왕 나무토막이 아무 말도 없이 잠잠하자, 개구리들은 연못 표면으로 솟구쳐 올라왔다. 개구리들은 차차 '이건 뭐 아무 것도 아니구나!' 싶어서 대왕 나무토막을 툭툭 쳐보고 올라타보고 하면서 업신여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런 목석 같은 물건한테 통치를 받는 것이 어쩐지 체면이 깎이는 일처럼 생각한 개구리들은 다시 한 번 제우스 신한테 가서 자신들의 왕을 바꿔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번에 내려 주신 왕은 너무 게으릅시다." 제 주제를 모르고 설치는 개구리들한테 화가 난 제우스 신은 물뱀 한 마리를 연못으로 내려보냈다. 물뱀 대왕은 '웁다구나!'하고 개구리를 잡히는 족족 집어삼켜 개구리 요리로 실컷 배를 채웠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게으르지만 남을 해치지 않는 왕이 불행을 만드는 독재자 왕보다 백성들 입장에서 훨씬 지내기가 낫다는 내용이다.

다음에 다루는 우화는 앞서 밝혔듯이 같은 내용을 프랑스인 라 폰텐이 각색한 우화이다. 여기서도 <원문 1>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개별 문장에 대한 최선의 우리말 번역을 모색하면서, 특히 시간과 공간적인 변화가 가져오는 상황 문맥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원문 2>

The Frogs Who Asked For a King

①The frog nation②, becoming bored
With democracy, raised such a fractious③ cry
That Jupiter appointed them an overlord④.
⑤The king who came down was far from being harsh; ⑥
Yet he made such a noise when he fell from the sky
That the people of the marsh
Rushed to hide themselves in the pools.
In the reeds and rushes, in every nook⑦

Of their froggy bog,
 Without for a long time daring to face
 This strange giant. ㉔In fact it was a log
 That had made the awesome splash. ㉕The first frog
 Who was daring enough to take a look
 Quitted his hiding place
 And swam up, trembling in every limb.
 ㉖Another followed the first, a third followed him,
 Until finally a whole swarm,
 Getting cheekier and bolder,
 Actually hopped on their monarch's shoulder,
 Without a murmur of protest from the inert form
 Of the old chap. ㉗Before long the frogs were clamouring: ㉘(f)
 'We want an active king!'
 ㉙By now nearly out of his mind
 With annoyance, Jupiter sent them a crane.
 Who breakfasted and lunched and dined
 On frogs whenever he felt inclined.
 ㉚And still the frogs continued to complain.
 ㉛This time Jupiter told them flat:
 'Don't be silly. Do you think that my decrees
 Can be replaced just as frogs please?
 To start with, you should have kept
 Your own government. Failing to do that,
 You should have been content to accept
 Your first king, who was amiable and kind.
 Learn to be grateful
 For the one you have - or you may find
 The next king far more hateful.'

먼저 이 텍스트는 운문의 형식을 따고 있다는 점이 번역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산문과 운문은 어휘 선택이나 어조의 결정 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각운(rhyme) 등 개별 언어 특유의 형식과 관련된 요소는 번역 과정에서 사상(捨象)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요소까지 번역에 반영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이다. 따라서 원문의 행 배치는 우리말 번역에서 무의미하다. 그렇지만 한 가지, 독자를 대하는 어조는 경어체로 잡았다. 작중 화자(story teller)의 목소리가 언뜻 언뜻 내비치기 때문이다. 우리말에서는 화자와 청자(=독자)가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언어 예절이다.¹⁷⁾ 이는 텍스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상황 문맥의 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㉗에서는 ㉔, ㉕, ㉖ 세 단어의 번역 어휘 선택이 관건이다. 우선 ㉔는 '국민'과 '국가'의 두 가지 뜻을 갖는 단어인데, 이어지는 구절('raised ... 이하)로 미루어서 행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국민'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17세기라는 시대 배경(=상황 문맥)을 감안하면 '백성'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¹⁸⁾ ㉕는 '까다로운', '성을 잘 내는'의 뜻인데, 앞에 나오는 단어 'bored(싫증난)'와

17) 신문 기사의 어조와 방송 아나운서의 어조를 비교해 보면 참고가 될 것이다.

18) 물론 이 우화를 읽는 독자들은 현대인이지만, '왕'과 대응되는 위치에서 쓰일 수 있는 말은 '국민'이 아니라 역시 '백성'이 자연스럽게 들린다.

관련시키면 ‘짜증 섞인’이 적당하게 생각된다. ㉔는 ‘군주의 군주’ 내지 ‘대군주’의 뜻이니 ‘대왕’ 정도가 어울린다. (바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창작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절대 왕정 시대라는 점도 이 번역 어휘의 선택에 참고가 된다.)¹⁹⁾

㉔개구리 나라 백성들 좀 보소. 민주주의에 싫증이 나서 어찌나 짜증 섞인 고함을 질러댔던지 듣다 못한 주피터 신께서 대왕을 임명해 주셨지요.

㉔에 보이는 문장부호 ㉔는 앞뒤의 문장을 구분해 주는 경계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에 등위접속사 ‘yet’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에서는 무시해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사실상 두 문장인 셈이다. 여기서는 형식을 존중하여 한 문장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㉔는 ‘구석’ 또는 ‘숨을 곳’, ‘푹 파인 곳’ 등의 뜻인데, 앞에 나오는 ‘every’와 합쳐서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나타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구석’이라고 하면 좀 어색한 번역이 되고 만다. 우리말에서 복수 개념을 표시하는 다양한 방법을 응용하면 된다. 여기서는 첨어를 쓰기로 했다.

㉔내려온 대왕님은 전혀 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하늘에서 떨어질 때는 ‘툼버덩!’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높에 있던 개구리 백성들은 모두 연못 속 몸을 숨길 데를 찾아 갈대풀, 골풀 할 것 없이 개구리 나라의 영토 구석 구석 구멍만 있으면 뛰어들어서 한참을 감히 이 이상한 거인의 용안도 못 봐올 정도였지요.

㉔과 ㉔, ㉔은 번역상 별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그대로 우리말 번역을 제시하기로 한다.

㉔알고 보니 그토록 엄청난 ‘툼버덩!’ 소리를 낸 건 바로 통나무였다네.

㉔제법 정신을 가다듬고 첫번째 개구리가 고개를 들고 은신처를 떠나 사지를 흔들며 헤엄쳐 올라왔지요.

㉔다른 한 마리가 그 뒤를 따르고 또 한 마리가 그 뒤의 뒤를 따라, 마침내 온 개구리떼가 차츰 차츰 건방지고 용감해져서 대왕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깡충깡충 뛰노는데도, 과묵한 대왕님한테선 싫다 소리 한 마디 안 나왔다네.

㉔에서는 문장부호 ㉔ 정도가 문제인데, 이 문장부호는 다음에 인용 구문을 이끌고 있으므로 따

19) 원래 라 폰텐 우화에는 정치적인 색채가 다분히 가미되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 우화에서 정치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 텍스트만 좀 주의깊게 읽어 본다면 이 우화가 앞서 소개한 <이슈우화>와는 ‘분위기’가 썩 다르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작중 등장인물들 말고 작중 화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문장에 나오는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단어도 다르게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원종익(1998)의 논의에 따르면 라 폰텐은 자신이 창작한 우화의 텍스트에 정치적 메시지를 담았으며, 그 성격은 급진적이거나 혁명적이지 않고 ‘절대 권력을 인정하면서 절대 권력자의 의무를 촉구하는’ 정도의 수위를 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 나온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전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파격적이긴 하지만 차라리 ‘중우(衆愚)정치’로 옮기는 것도 괜찮을 성싶다.

음표를 사용하면 우리말 번역에서는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된다. 그냥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앞뒤 문장의 연결상 원문에 없던 접속어가 필요하다.

㉔그러자 개구리떼는 목청껏 외치기 시작했지요. “우리 행동하는 왕을 원한다구요!”

㉕과 ㉖에서도 번역상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대로 우리말 번역을 제시하기로 한다.

㉗성가신 나머지 정신이 다 나간 주피터 신께서 황새 한 마리를 내려보내셨는데, 이 황새 대왕님 아침, 점심, 저녁 삼시 세끼를 마음 내킬 때마다 모조리 개구리 요리로 드셨다는군요.

㉘개구리들은 그래도 여전히 불평 불만이었지요.

㉙은 작중 화자가 주피터 신의 입을 빌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장면인데, 인용부호 안에 6개의 문장이 들어 있지만 한꺼번에 처리했다.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주피터 신(=화자)과 개구리들(=청자)의 관계를 정확하게 따져서 경어법 체계를 적절하게 세우는 일이다. 우리말 특유의 상황 문맥이 작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㉚주피터 신께서도 이번에는 엄중하게 말씀하셨다네.

“어리석도다. 설마하니 자네들 내 칙령이 개구리 마음대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진 않겠지? 애당초 자네들은 스스로 정부를 가졌어야 했어. 그게 안 됐으면 처음 보내준 온화하고 친절한 왕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야지. 지금 모시고 있는 왕한테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안 그러면 다음 번 왕은 훨씬 더 끔찍할 거라네.”

<번역 2>

왕을 달라고 외친 개구리들

개구리 나라 백성들 좀 보소.
 민주주의에 싫증이 나서 어찌나 짜증 섞인 고향을 질러뒀던지
 듣다 못한 주피터 신께서 대왕을 임명해 주셨지요.
 내려온 대왕님은 전혀 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하늘에서 떨어질 때는 '툼버덩!'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눈에 있던 개구리 백성들은 모두
 연못 속 몸을 숨길 데를 찾아
 갈대풀, 골풀 할 것 없이
 개구리 나라의 영토 구석 구석 구멍만 있으면 뛰어들어서
 한참을 감히 이 이상한 거인의 용안도 못 뵈울 정도였지요.
 알고 보니 그토록 엄청난 '툼버덩!' 소리를 낸 건 바로 통나무였다네.
 제법 정신을 가다듬고 첫번째 개구리가 고개를 들고
 은신처를 떠나
 사지를 흔들며 헤엄쳐 올라왔지요.
 다른 한 마리가 그 뒤를 따르고 또 한 마리가 그 뒤의 뒤를 따라,
 마침내 온 개구리떼가
 차츰 차츰 건방지고 용감해져서
 대왕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깡충깡충 뛰노는데도,
 과묵한 대왕님한테선 싫다 소리 한 마디 안 나왔다네.

그러자 개구리떼는 목청껏 외치기 시작했지요.
 “우린 행동하는 왕을 원한다구요!”
 성가신 나머지 정신이 다 나간 주피터 신께서
 황새 한 마리를 내려보내셨는데, 이 황새 대왕님
 아침, 점심, 저녁 삼시 세끼를 마음 내킬 때마다
 모조리 개구리 요리로 드셨다는군요.
 개구리들은 그래도 여전히 불평 불만이었지요.
 주피터 신께서도 이번에는 엄중하게 말씀하셨다네.
 “어리석도다. 설마하니 자네들
 내 칙령이 개구리 마음대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진 않겠지?
 애당초 자네들은 스스로 정부를 가졌어야 했어. 그게 안 됐으면
 처음 보내준 온화하고 친절할 왕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야지.
 지금 모시고 있는 왕한테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안 그러면
 다음 번 왕은 훨씬 더 끔찍할 거라네.”

IV. 요약 및 결론

우리는 흔히 번역 작업에서 ‘번역의 결과가 주어진 문맥에 맞아야 한다’는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데, 문맥은 좀더 세분하면 언어 문맥과 상황 문맥으로 나뉘므로 앞서 전제로 한 일반론도 ‘번역의 결과가 주어진 언어 문맥과 상황 문맥에 맞아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명제로 환치시킬 수 있다. 여기서 언어 문맥은 언어 구조로 드러난 문맥을 말하며 상황 문맥은 발화 참여자와 발화의 시간·공간적 배경, 즉 발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말한다. 그런데 언어 문맥은 단일한 층위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다층적인 구조를 갖는다. 결국 번역자는 원문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다층적인 언어 문맥을 파악해가는 동시에 이 텍스트를 둘러싼 상황 문맥까지 염두에 두어야 최선의 번역을 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 이론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솝우화>와 <라 폰텐 우화>를 텍스트로 하여 번역 과정에서 문맥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텍스트 자체가 갖는 약간의 비논리적이고 파격적인 문장 구사의 한계로 인하여, 번역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문맥의 기능에 대해서 완벽하게 논의를 전개하지는 못했지만, 대강의 윤곽은 드러낼 수 있었다고 본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이론이 실제 번역 작업에 종사하는 번역자들에게 일종의 작업 편람(manual)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후일의 과제로 남겨두고 글을 맺기로 한다.

참고 문헌

- 김정우(1990) “15세기 불경 언해의 문체와 어휘 -「능엄경 언해」의 경우.” 『팔리대장경 우리말 옮김』(논문 모음 I), 경전읽기 모임(송광사 경전연구소).
- 김정우(1997), 『영어를 우리말처럼 우리말을 영어처럼』 (이론편), 서울: 창문사.
- 김정우 편(1997), 『영어 번역을 하려면 꼭 알아야 할 90가지 핵심 포인트』, 서울: 창문사.

원종익(1998). "절대 왕정(La Monarchie absolue)과 라 폰텐느(La Fontaine)." 「프랑스학 연구」 제16권. 프랑스학회.

이정민·배양서(1982). 「언어학 사전」. 서울: 한신문화사.

조성식 편(1990). 「영어학 사전」. 서울: 신아사.